

내 인생의 체인지업 시즌2

서울권4050 우수사례 스토리북

내 인생의 체인지업 시즌2

서울런4050 우수사례 스토리북

마음을 움직인 여러분 인생의 체인지업!

서울 중장년의 새로운 시작을 지원하기 위해 시작된 서울런4050 프로젝트,
그 두 번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중장년 세대가 전환점에서 마주하는 고민과 도전에
주목하며, 다양한 일자리와 배움의 기회를 통해 다시 꿈꾸고 도약할 수 있도록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내 인생의 체인지업> 시즌1에서 보여주신 열정과
감동은 <서울런4050>사업을 더욱 풍성하고 내실 있게 준비할 수 있는 큰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이번 공모전에는 총 87편의 이야기가 접수되었습니다. 용기를 내어 도전하고,
일자리와 새로운 배움을 통해 삶의 활력을 찾으신 분들의 이야기는 같은 길을 걷는
많은 중장년 세대에게 희망과 영감을 주는 소중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으로 선정된 15편의 이야기를 담아 이 책으로
엮었습니다. 책 속에는 경력 단절 후 재취업에 성공한 사례, 새로운 기술을 배우며
인생의 방향을 전환한 이야기, 그리고 일자리와 배움을 통해 가족, 나아가 우리
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은 감동적인 순간들이 담겨 있습니다.

도전이 망설여질 때, 변화가 두려울 때, 이 기록들이 더 많은 중장년 세대에게
용기와 도전의 불씨를 심어줄 것을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중장년 세대의 가능성에 집중하겠습니다.
더 나은 삶의 전환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여정에 항상 함께하며 응원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이번 공모전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 중장년 세대가 빛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
대표이사 강 명

목차



| | |
|------|----|
| 여는 글 | 02 |
|------|----|

전환 새로운 내 일을 만나다, 체인지業

| | | |
|-----|---|----|
| 홍재현 | 내가 바라던 직업으로, 꿈은 이루어진다  | 08 |
| 임준원 | 깜깜했던 내 삶을 밝혀준 인생2막 로드맵 | 14 |
| 김민정 | 중장년 콘텐츠 크리에이터의 꿈, 인턴십으로 한걸음 가까이 | 18 |
| 최은지 | 새로운 도전과 기회의 장이 된 선물 같은 시간 | 22 |
| 장진숙 | 프라이팬에서 탈출하여 불꽃으로 피어오르다 | 24 |



성장

여전히 배우고 자란다, 체인지UP!

| | | |
|-----|---|----|
| 박준형 | 인턴은 나이가 아니라 열정을 품은 사람이다  | 28 |
| 이중건 | 외국인 유학생과 기업을 잇는 다리가 되길  | 34 |
| 박상일 | 내 안의 두려움을 넘어 세상을 향하는 성장의 길로 | 40 |
| 최석재 | 막연한 관심에서 이제는 구체적인 미래로 | 44 |
| 장진민 | 대치동 입시강사, 에듀테크 소셜벤처 창업가 되다 | 46 |

변화

내가 바뀌고, 세상도 바꾸다, CHANGE업!

| | | |
|-----|--|----|
| 윤미희 | 무기력했던 내가 활력넘치는 N잡러가 되다니!  | 50 |
| 조수연 | 기술만 배울 줄 알았는데, 삶이 바뀌었다  | 56 |
| 이유경 | 고민 끝에 한 작은 도전이 커다란 선물이 되어 돌아오다 | 62 |
| 하윤수 | 실패를 딛고 일어난 재취업 여정 | 64 |
| 오창환 | 움츠려있던 내가 긍정적이고 도전적으로 변하기까지 | 66 |

사업소개

70

새로운 내 일을 만나다 체인지業

홍재현

임준원

김민정

최은지

장진숙

전환

내가 바라던 직업으로, 꿈은 이루어진다
깜깜했던 내 삶을 밝혀준 인생2막 로드맵
중장년 콘텐츠 크리에이터의 꿈, 인턴십으로 한걸음 가까이
새로운 도전과 기회의 장이 된 선물 같은 시간
프라이팬에서 탈출하여 불꽃으로 피어오르다

내가 바라던 직업으로, 꿈은 이루어진다 | 4050인턴십, 40대 직업전환 프로그램

홍재현

다니던 회사를 퇴사하고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던 작년 가을, 구직급여신청자교육 때문에 고용노동부 서부센터에 갔다가 50플러스 중부캠퍼스에서 나오신 김OO 컨설턴트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관심 있던 분야의 교육프로그램을 소개 받으면서 앞으로 내가 갈 수 있는 길이 생각보다 꽤 다양하다는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문적이면서도 솔직 담백한 상담과 온라인 자가진단은 자신을 조금 더 객관화하는 기반이 되었고, 경력설계 멘토링까지 마치자 자신감과 함께 미래지향적인 계획도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래, 딱 1년만 나를 위해 투자하자’ 라고 결심하며 서울시50플러스재단을 찾게 되었습니다. 「웹사이트제작」, 「생성형AI 활용」, 「여행업 취·창업·창직 교육」에 이어 「창업보육전문매니저 자격취득과정」까지 8주 동안 열심히 듣고 자격증을 땀습니다. 올해 목표 중 하나를 이루었기에 성취감은 더 컸습니다.

그러던 중, 「4050인턴십」 사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참여하는 기업은 어떤 곳들인가 쪽 살펴보다가 평소에 관심 있었던, 제 인생 2막의 직업으로 고민하고 있던 ESG 분야의 기업 ‘(주)아이엠에스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경영 컨설팅 부분, 그 중에서도 ESG경영 부문의 인턴십이었습니다. 그 분야 석사 과정도 하고 있었기에, 인턴으로 실무를 경험할 수 있다면 직업전환을 위한 최고의 기회가 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 길로 바로 지원하여 면접까지 보았으나 결과는 아쉽게 탈락. ‘아, 이런 시험에서도 떨어지는구나’ 라는 자괴감에 허탈해 하던 차에 재단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먼저 합격한 분이 포기하여 차순위인 저에게 기회가 온 것입니다. (이 기회를 빌어 감사합니다. 연락주신 재단에게도 그리고 포기한 그 분에게도.) 담당자의 참여의사가 있냐는 질문에 저는 숨도 안쉬고 ‘물론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첫 출근 전에는 주변 젊은 사람들에게, 특히 20대 아들에게 이런저런 자문을 구했습니다. 요즘 2030세대들의 사고방식과 직장에서의 근무신념이나 스타일은 어떤지, 그들 앞에서 해서는 안되는 말 등등 궁금한 게 많았습니다.

드디어 인턴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비록 일주일에 두 번, 한 달간 총 57시간 이내의 파트타임 근무였지만, 아침에 눈을 뜨면 일 하러 가는 목적지가 있다는 것이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그것도 다름 아닌 제가 관심 있고, 앞으로 하고픈 분야라서 더욱 더 그랬습니다. ‘중년 직업전환’의 기회이자 인생 후반의 여정으로 향하는 출발선이라고 생각하자는 다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새로운 일과 환경에 적응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인턴이라는 직위상 중장기적 지속성이 필요한 업무나 중요도가 높은 업무에는 투입되지 않은 이유도 있지만 지난 시절, 업무 특성상 맡은 사업의 A부터 Z까지 다 할 줄 알아야 했는데 그때 내재된 경험과 노하우 덕인 것 같습니다. 생소한 업무들은 선임자들에게 질문 하고 조언을 구하면서 스스로 역량을 키워나갔습니다. 바쁜 업무중에도 제게 기꺼이 시간을 내어준 동료 선임자들에게 감사한 마음입니다.

일주일 2회, 한 달에 8회, 3개월간 총 24회의 근무. 풀타임 기준으로 보면, 약 한 달 남짓 근무한 정도라 전문적인 직무역량을 상승시킨다거나 노하우를 체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마침 시기적절하게 저에게 안성맞춤의

비록 일주일에 두 번, 한 달간 총 57시간 이내의 파트타임 근무였지만, 아침에 눈을 뜨면 일 하러 가는 목적지가 있다는 것이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그것도 다름 아닌 제가 관심 있고, 앞으로 하고픈 분야라서 더욱 더 그랬습니다. 이번 인턴십이 ‘중년 직업전환’의 기회이자 인생 후반의 여정으로 향하는 출발선이라고 생각하자는 다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교육 프로그램이 서울시50플러스재단에 개설되었습니다. 40대 직업전환프로그램 중 하나인 「ESG평가사 입문」, 「ESG공시·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전문가 과정」, 「ESG공급망평가대응 전문가 과정」이 그것입니다. 세 과정 모두 제가 인턴으로 근무하는 기업의 대표가 강사인 교육이었기에 글자 그대로 저에게 꼭 맞는 ‘맞춤형 교육’이었습니다. 그 덕에 지난 6개월 동안 토요일이 없는 주말을 보내야 했지만 무척 만족합니다.

3개월 후, 「4050인턴십」 활동이 종료되고,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원하는 직무 분야로의 중년 직업 전환은 꿈이 아닌 현실로 다가온 것입니다. 인턴십 기간 동안 따뜻하게 해주신 (주)아이엠에스알의 대표님과 동료 직원들, 유익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주신 서울시50플러스재단 모두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지난 6개월간의 인턴 활동, 직업 전환 교육, 자격증 취득은 인생 후반전 삶을 설계하기 위한 영양 가득한 유기농 재료였습니다. 내년에는 ESG 경영 분야 박사 과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인턴으로 시작한 지금의 일은 생계 유지 수단이기도 하지만 사회적 가치 창출에 작게나마 일조할 수 있는 일을 찾을 계기가 되었습니다.

인생 후반전, 인생 2막을 꿈꾸는 분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꿈은 이루어집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자신을 믿고 투자하십시오.” 서울시50플러스재단의 다양한 프로그램에서 관심 있는 아이템을 찾아 멘토링, 코칭, 컨설팅과 교육을 받으며 경쟁력을 만들어 가길 기대합니다.

*ESG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뜻하는 것으로, ‘ESG 경영’이란 장기적 관점에서 친환경 및 사회적책임 경영과 투명경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수상자 미니 인터뷰

홍재현 님



인턴십 뿐만 아니라 재단의 크고 작은 교육과 사업에 두루 참여하셨더라고요. 선생님의 꿈을 이뤄나가는데 이런 경험들이 도움이 됐을까요?

그럼요, 물론입니다. 아주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제가 관심갖고 들었던 ESG 교육만 해도 사실 비슷한 교육을 하는 곳은 많거든요. 하지만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중장년이 주축인 곳은 서울시50플러스재단 밖에 없어요. 서로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또래가 있다는 게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거든요. 실무 중심으로 짜여진 강좌 퀄리티 또한 정말 훌륭했습니다.

재단이 처음인 동년배에게 어떤 프로그램이나 공간을 추천하고 싶으세요?

일단 한 번 구경해보라고 하고 싶어요. 가서 우리 또래가 만들어내는 역동성을 느껴보라고 하고 싶습니다. 처음 50+캠퍼스를 갔을 때, 1층에서 피칭데이를 하고 있었는데 가슴이 막 설레더라고요. 그러다가 상담센터에 갔는데 편안하게 대해주시는 컨설턴트님 덕분에 유용한 조언과 정보를 들었어요. 뭔가를 시작하려는 분이라면 경력설계 상담으로 자기 점검을 먼저 해보라고 하고 싶네요.

앞으로 10년 후의 계획과 바람을 듣고 싶습니다.

아직 많은 사람들이 ESG개념을 잘 모르거든요. 앞으로는 ESG에 대해 점점 더 많이 관심이 생길 거라고 봐요. 지금보다는 조금 더 알기 쉽고 편안하게 ESG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보급하고 싶습니다. 동네 아저씨처럼 친근하게 ESG에 대해 뭐든 물어보면 알기쉽게 대답해 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주)아이엠에스알 서동욱 대표님 인터뷰

중장년 인턴십, 해보니 어떠신가요?

사회생활을 많이 해보신 분들만큼 비즈니스 매너와 커뮤니케이션 기술이 잘 갖춰져 있을 거라는 기대로 채용했습니다. 저희가 하는 컨설팅 업무는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인턴십 참여자 모두 기대한 대로 잘 하고 계십니다. 사실 협력사들과 일할 때 부드럽게만 하면 잘 안될 때가 있습니다. 필요할 때는 강하게 나가야하는데 제가 못하는 그 부분을 홍재현 연구원은 참 잘 하시더라고요.

어떤 점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요한 포인트였나요?

일단 성실해야 합니다. 근태는 기본이고요. 컨설팅 분야는 마감에 맞춰 제안서를 쓰는 일이 많습니다. 홍재현 연구원은 마감 일정을 늘 정확하게 맞춰주시고,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해주셔서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저 분과는 함께 오래오래 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깜깜했던 내 삶을 밝혀준 인생2막 로드맵 | 4050직무훈련

임준원

나는 결혼 후 애견샵을 운영하며 가족만 바라보는 성실한 자영업자로 살았다. 오랜 시간 한자리를 지키며 제법 자리를 잡았는데 코로나가 찾아왔고 손님의 발길도 딱 끊어졌다. 업친데 덮친격으로 코로나 확진 후 청각 이상으로 이명까지 찾아왔다. 강아지 짖는 소리를 20년 넘게 들어왔는데 점점 토할 정도로 거부감이 생겼고, 매출은 대출금 이자도 감당 못할 형편이었다. 결국 가게를 아내에게만 맡기고 다른 일을 찾아 헤맸다.

대리운전을 하면서 새벽에는 아파트 입주민 세차에 생전 안해보던 어패류 영업까지 밤낮없이 뛰었지만 돈이 되진 않았고 가족에게는 서서히 무능한 투명인간이 되어가고 있었다. 공여지책으로 자동차 세차장 일을 배워, 지인과 함께 작은 손 세차장을 개업했다. 부지런하면 굶어 죽지는 않겠다 싶었지만 코로나 여파에 세차장은 제대로 피어보지도 못했다. 결국 밤늦게 살금살금 들어와 소파에서 몇 시간

눈 붙이다 다시 새벽에 나와 아파트 세차를 하는 날들이 이어졌다. 몸은 고되었고 마음은 더 무거웠다. 점점 말이 없어졌고, 어머니도 속앓이를 하시다 갑작스레 폐렴으로 돌아가시면서 대출이자도 못 갚는 이 한심한 신세는 갈 곳을 잃었다.

설상가상으로 저금리로 대출을 바꿔준다는 문자를 덤석 물어 보이스포싱으로 3200만 원을 날렸다. 돈보다 더 망가진 건 마음이었다. 한심하고 비참했다. 극심한 피로감에 어느날 내 차 안에서 쓰러지고 말았다. 그래도 내 보물 같은 딸을 생각하며 기를 쓰고 다시 일어났다. 아무것도 해결된 건 없지만 무작정 마음을 먼저 추스르기 시작했다.

생활비를 벌어보고자 우연히 법원의 자동차 경매를 살펴보던 중 ‘진단평가사’라는 직업을 자세히 알고 싶어 검색했다. 그런데 “어? 난 지금까지 뭘 한 거지?” 이거야말로 내가 할 수 있는 내 천직인 것 같은 생각이 들었고 관심과 호기심이 샘솟았다.

사실 군복무 2년 동안 자동차 정비병으로 부대 내 모든 차량을 정비했었다. 90년대에 이미 따놓은 자동차정비기능사 2급 자격증도 있었다. 무엇보다 나는 자동차를 유난히 좋아하고 관리와 정비에 진심이다. 애먼 길로 30년을 돌고 돌아 이제야 내가 잘 할 수 있는 일을 찾다니!

당장 배우고 싶었지만 여유가 없었다. 그러다 내가 사는 광진구와 서울시50플러스재단이 함께 한 「중고 자동차진단평가 전문 인력 양성 과정」을 발견했다. 나같은 중장년의 재취업을 위한 교육인데다 서울시민이면 무료로 배울 수 있었다. 수강생을 30명 으로 제한하여 96시간을 꼭채워 진행하는 만큼 수업 퀄리티가 짙이었고 자격증 취득에 진심인 과정이었다. 마치 운명처럼 이 만남이 이루어졌다.

올여름 날씨만큼이나 교수님과 수강생들 하나같이 열정적이었고 직원들의 관심도 뜨거웠다. 자격증이 절실하게 필요한 늦깎이 열정맨이기에 수업을 못 따라갈 때는 진땀이 났고, 집에서도 유튜브로 관련 영상을 찾아보며 수업 진도를 쫓아가기 바빴다. ‘이렇게 해도 되는 걸까?’ 조바심이 날 때면 교수님과 면담을 하기도 했다. 택시 운전을 하면서도 틈틈이 공부했는데 그 자체가 좋았고, 몸은 고단해도 마음은 하나도 힘들지가 않았다. 오히려 나도 모르게 점점 힘이 났다.

서울시 중장년을 위한 모든 정보가 50+포털에!

인생 후반기를 준비하는 4050 세대라면
지금 검색창에 **50플러스**  를 검색하세요.

경력설계를 위한 상담부터
다양한 일자리, 직업훈련, 창업까지
중장년을 위한 모든 정보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50플러스포털
www.50plus.or.kr

아이를 키우는데만 한 마을이 필요한 게 아니었다.
무너져가는 중년에게도 도움을 줄 마을이 필요했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이라는 마을은 나를 일으켜 세워 주었다. 좌절과 원망에서 감사와 용기로 어느덧 내 마음까지 치유되는 귀한 경험이었다.

그렇게 안팎으로 노력하며 불안이 조금씩 잠재워졌고, 선배들이 들려주는 경험담까지 더해지니 진정한 나의 길, 진짜 내 인생 2막 로드맵이 서서히 완성되었다. 앞으로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가 세워지자 정말이지 가슴이 벅찼다.

드디어 최종 자격증시험이 있던 날, 시험장에서 “종료 30분 전입니다”라는 방송 소리를 듣고부터 갑자기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글씨가 안써져서 왼손으로 오른손과 펜을 바꿔 잡아가며 겨우 답을 써내려갔다. 결론은 아쉬운 불합격! 하지만 괜찮다. 다음 번엔 반드시 합격할 자신이 생겼으니까.

과정이 끝나갈 무렵 교수님 추천으로 경기과학기술대학교 조기취업형 계약학과인 미래모빌리티과에 응시하게 되었고, 전문학위과정도 밟게 되었다. 자동차 진단 평가사를 양성하고 취업까지 지원하는 이 학교는 자동차진단평가분야에서 만큼은 전국 제일의 학교라고 한다. 게다가 교수님과의 상담과 선배들의 조언 속에서 취업 문제까지 해결되어 곧 직장과 학교를 오가는 만학도가 될 예정이다. 하하!

우울의 늪에 빠져버릴 수도 있었던 난 어느새 그 늪에서 빠져나와 서 있었다.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자체가 절망적이라 느꼈던 내 삶에 새롭게 도전의식이 생겼다는 증거다. 지금은 이 사회속에서 살아낼 명확한 기준이 잡혔고 목표도 구체적이어서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긴다. 돌아보니 이 과정을 만난 건 나에게 참으로 가슴 벅찬 기회였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의 실로 기가막힌 기획이었다.

자동차진단평가사는 나이 제한이 없다. 오히려 다양한 경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신뢰받는 전문가가 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매력적인가! 중고자동차에 관한 나의 진단결과에 모든 책임을 질 각오로 성실하게 임할 것이다. 내 딸이 살아갈 세상이 신뢰 가득한 더 나은 세상이 되도록 하는 게 내 판단의 기준이 될 것이다.

혹시 지금까지 내 사연이 너무 복잡하고 불행하게만 보여지는가?

그렇지 않다. 일어난 사실은 사실일 뿐이다. 나는 나의 길을 이제 누구의 길과도 비교하지 않는다. 지금 나는 이 과정을 성실히 마친 내가 대견하고 자랑스럽다. 그리고 마음이 편안하다. 인생 2막을 시작하며 나한테 잘 맞는 로드맵을 그렸으니 이제부터는 나에게 집중하며 내 길을 잘 닦아갈 뿐이다.

중장년이라면 누구든 자신있는 분야의 프로그램이 보인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기를 진심으로 권하고 싶다. 나처럼 52세에도 인생 제2막을 열고 새로운 직업에 성공적으로 도전할 수 있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에서 도와주고 있기 때문이다.

아이를 키우는데만 한 마을이 필요한 게 아니었다. 무너져가는 중년에게도 마을이 필요했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이라는 이름의 마을은 나를 일으켜 세워주었다. 좌절과 원망에서 감사와 용기로 어느덧 내 마음까지 치유되는 귀한 경험이었다.

이제 나는 열정과 의지를 다시 채워넣어 직장과 학업을 병행하는 늦각이 직장인 대학생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것이다. 내 나이 또래 누구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재단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는다면 틀림없이 큰 즐거움을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

훗날 중고자동차시장에서 꾸준히 커리어를 쌓아가는 머리 희끗한 어느 노장이 보이거든 화이팅!이라 외쳐주면 고맙겠다.

중장년 콘텐츠 크리에이터의 꿈, 인턴십으로 한걸음 가까이 | 4050인턴십

김민정

오십을 앞둔 나이지만 여전히 배우고 성장하고 싶다는 강한 바람이 있었습니다. 중장년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에 관심이 많았기에 관련된 창업을 하거나 일을 해 보고 싶었지만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문득 몇 년 전 서울시50플러스재단의 인턴십을 경험했다던 회사 지인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그길로 50플러스포털에 접속했고, ‘서울런4050’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4050인턴십」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구직처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다보니 나이는 더 이상 제약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고, 나도 새로운 도전을 해볼 수 있겠다는 자신감도 생겼습니다.

그렇게 알게 된 회사가 올콘미디어였습니다. ‘미디어를 통해 중장년이 즐겁고 건강한 삶을 누리며, 그들의 경험과 지혜가 새로운 창작 자원이 되도록 지원하는

곳'으로 저의 관심 분야와 일치했습니다. 제가 가진 경험과 지식을 활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내가 정말 이 회사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하는 불안에 처음에는 지원을 망설이기도 했습니다. 배우도 중요했지만, 회사에도 어떤식으로든 기여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시작한 인턴십은 걱정과 달리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고 자신감을 키울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특히 대표님과 이사님께서 조언해 주신 중장년의 삶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과 크리에이터로서의 가능성은 그동안 막연하게만 생각했던 꿈이 구체적인 방향을 갖추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올콘미디어가 운영하는 다양한 중장년층 대상의 유튜브 채널 중 '강일홍의 클로즈업'에 참여하며 처음으로 촬영과 편집 업무를 경험했습니다. 카메라, 조명, 마이크 등 생소한 장비 들을 다루며 적응해 나갔고, 효과적으로 업무를 익히기 위해 이미지와 메모로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매 순간이 도전이었지만 새로운 것을 배우는 과정에서 느끼는 즐거움이 더 컸습니다.

퇴근 후에도 편집 프로그램을 연습하며 한 달 안에 촬영과 편집의 기본 프로세스 익히기를 목표로 삼았습니다. 출근한지 3일 후에 쇼츠 영상을 제작할 수 있게 되었고, 곧 간단한 영상 편집도 말을 정도로 빠르게 익숙해졌습니다.

촬영과 편집 기술을 배운 것도 좋았지만 무엇보다 인턴십 활동을 할수록 미디어 콘텐츠가 중장년 세대의 삶에 활력을 주고,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확신을 얻은 것이 가장 큰 수확이었습니다. 소셜 미디어를 활발히 이용하는 중장년층의 모습을 보며, 저의 방향성도 점차 분명해졌습니다. 인턴십 경험이 앞으로의 제 가치관과 목표를 설정하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할 수 있게 도와주는 원동력이 된 셈입니다.

저는 요즘 중장년 세대를 위한 콘텐츠 크리에이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소설이나 수필, 요즘 이슈가 되는 프로그램 등을 저만의 시각으로 재해석하여 이미지와 목소리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콘텐츠를 만들어보려 합니다. 한 번 보고 마는 것이 아니라 감동과 의미를 담아 두고두고 볼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고 싶습니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우리 중장년 세대가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며 살아갈지 계획을 세우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걱려를 아끼지 않는 든든한 친정같은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살면서 도움이 필요하거나 어려움에 처했을 때, 친정이 가장 먼저 생각난다고 하지요.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우리 중장년세대가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며 살아갈지 계획을 세우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격려를 아끼지 않는 든든한 친정같은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인턴십 경험을 바탕으로 더 큰 꿈을 향해 나아가고 싶습니다. 서울시 50플러스재단이 계속해서 저의 도전을 지지해 줄 것이라 믿기에 이제는 두렵지 않습니다. 서울의 모든 중장년들이 저처럼 든든한 제2의 친정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도전과 기회의 장이 된 선물 같은 시간 | 40대 직업캠프

최은지

40대 중반, 국제원자재 시장 애널리스트·컨설턴트 경력을 뒤로 하고 자발적 퇴사를 결심했습니다.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던 중 우연히 알게된 서울시50플러스 재단의 '서울런4050' 프로그램은 40대를 위한 특화된 직업전환 전문교육과 직업 캠프, 경력설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는데, 특히 ESG(환경, 사회, 지배 구조)와 관련한 과정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기존 경력을 활용하면서도 새로운 분야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라 생각했고, 미래 지향적인 분야라는 점도 매력적이었습니다. 게다가 공공기관에서 선별한 검증된 강사진과 실무 중심의 교육, 그리고 경제적 부담 없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으로 다가왔습니다.

2023년, 40대 직업캠프인 「ESG 평가사」 과정에 참여했습니다. 매주 토요일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다양한 배경을 가진 40대들과 함께 강의를 들었습니다.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의 전문 심사원들로부터 실무 중심의 강의와 멘토링을

받으며 업무의 특성과 현실을 파악할 수 있었고,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공시 분야에 더 집중해야겠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무엇보다 이 경험을 토대로 재취업하는 성과도 얻었습니다.

해가 바뀌어 올해는 「ESG평가사 실무과정」과 「ESG공시·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전문가 과정」을 들었습니다. 퇴근 후 회사와 교육장까지 1시간 20분이 넘는 거리를 가야했지만 실무 능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었기에 힘든줄 모르고 열심히 참여했습니다. 특히 서동욱 대표님의 실무 위주 수업은 현장에서 즉시 적용할 수 있는 귀중한 지식이었습니다.

저를 좋게 평가해주신 덕분에 성공적인 전직 사례로 인정받아 특별한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입문과정의 주말 강의 조교를 맡게 된 것입니다. 학습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다양한 수강생들과 교류할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ESG 공급망 평가 대응 전문가 과정」도 이수하면서 전문성을 한층 강화했습니다. 1년동안 체계적인 교육과 실무를 두루 경험하다보니 보고서 작성과 컨설팅, 강의 활동이 제 적성과 매우 부합한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서울린4050 프로그램은 제 인생에 전환과 변화, 성장이라는 세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첫째, ‘전환’의 측면에서 애널리스트·컨설턴트에서 ESG 전문가로의 성공적인 경력 전환을 이뤘습니다. 둘째, ‘변화’의 측면에서는 심도 있는 학습과 실무 경험을 통해 지속가능한 비즈니스의 중요성을 깨달았고, 이는 제 삶의 가치관과 목표를 새롭게 정립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셋째, ‘성장’의 측면에서는 ESG 평가사, ESG 컨설턴트,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전문위원, 공급망 평가대응 컨설턴트로서의 전문성을 갖추며 의미 있는 2차 전직을 달성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40대 중반의 저에게 새로운 도전의 기회를 제공했고, 덕분에 ESG라는 미래 지향적 분야에서 새로운 경력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개인적 성장뿐만 아니라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가로 거듭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인생의 전환점에 서 있는 서울의 40대들에게 서울린4050 프로그램을 적극 추천하고 싶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한 든든한 발판이 되어줄 것입니다.

프라이팬에서 탈출하여 불꽃으로 피어오르다 | 경력설계트립

장진숙

2023년, 심각한 번아웃을 견디지 못하고 14년동안 근무했던 소위 ‘안정적인 일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혹독하기만 했습니다. 20-30대 했던 이직처럼 잘 될거라고 믿었던 자신감은 점점 좌절감으로 변해 갔습니다.

그러다 50플러스 캠퍼스에서 운영하는 「경력설계 프로그램-다음 커리어를 찾는 여행 ‘경력설계 트립(T.R.I.P.)」을 발견했습니다. 제목도 너무나 매력적이었고, ‘전환기를 맞이한 중장년 세대에게 자기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이 원하는 일, 활동의 방향을 찾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이라는 설명에 매료되었습니다. 딱 저 같은 사람을 위한 프로그램이라는 생각에 신청했습니다.

참여해 보니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일과 경력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다양한 가능성을 발견하고, 스스로 잘 알지 못했던 저에 대한 이해와 제2의 경력대안을

탐색하는 기회였습니다.

‘남들과 내가 다른 것은 무엇인지’ 생각하며 커리어 모자이크를 만들어 가라는 강사님 말씀은 큰 울림이 되었고, 100세 시대를 인생시계로 계산해 본다면 제 나이는 아직 낮 12시도 안된, 한창 일할 시간이라는 것에 용기가 생겼습니다. 진단도구 ‘커리어 앵커’를 통해 커리어 정체성에 대한 이해는 물론 나의 강점과 미래에는 어떤 역량이 필요한지 파악하는데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사람책과의 대화’는 관련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이 직접 나와서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는 방식인데, 너무나 강렬했습니다. ‘이렇게 우울해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나도 뭔가 좀 더 열심히 해 보아야겠다’는 의지에 불씨가 타오른 날이었습니다. 또한 ‘나는 시스템 안에서 일을 더 잘하고 성취감을 느끼는 사람’이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어, 전직이 아닌 이직으로 마음을 굳혔습니다.

DDP에서 열린 중장년 일자리박람회에도 가보고 다양한 일자리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공들여 제출했지만 서류 심사조차 떨어지는 경우도 있었고, 면접 분위기는 우호적이었지만 낙방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향지원한 일자리의 경우 합격의 기쁨은 있었지만, 막상 출근해 보면 계속 다니기엔 제 스스로 만족하기 어렵겠다는 생각이 하루만에 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하고 싶은 일, 할 수 있는 일, 해야 하는 일의 교집합에 해당하는 곳에 지원했고, 마침내 10:1의 경쟁을 뚫고 ‘팀장’ 직급에 합격했습니다.

지난 8월부터 새롭게 일하게 된 이곳은 업무량이 많습니다. 행사가 많을 땐 거의 매일 밤 9시나 10시에 퇴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람된 일, 하고 싶었던 일을 하게 된 것에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1년 전 무기력하고 우울했던 시간과는 완전 다르게 활기 넘치고 생동 감이 있는 지금의 제 모습이 만족스럽습니다.

저는 이제 다시 저의 길을 걸어가보려 합니다. 프라이팬에서 나온 곳이 불구덩이 속이라해도 오히려 제 열정으로 불을 더 뜨겁게 달구고, 아름다운 불꽃으로 피어나는 멋진 50대와 60대의 삶을 꿈꾸며 하루하루를 가꾸어 가겠습니다. 이런 변화의 터닝포인트를 마련해 주신 서울시50플러스재단과 캠퍼스, 센터에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배우고 자란다
CHANGE업!**

박준형

이중건

박상일

최석재

장진민

성장

인턴은 나이가 아니라 열정을 품은 사람이다
외국인 유학생과 기업을 잇는 다리가 되길
내 안의 두려움을 넘어 세상을 향하는 성장의 길로
막연한 관심에서 이제는 구체적인 미래로
대치동 입시강사, 에듀테크 소셜벤처 창업가 되다

인턴은 나이가 아니라 열정을 품은 사람이다 | 4050인턴십

박준형

어리석은 세상은 너를 몰라~ 누에 속에 감춰진 너를 못 봐~
나는 알아 내겐 보여~ 그토록 찬란한 너의 날개~

“합격하셨습니다.”

통화를 끊자, 내 귀에는 영화 국가대표 OST ‘버터플라이’ 노래가 마치 이 순간의 주제가인 것처럼 들리는 듯했다. 그동안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머릿속을 흐르며 순간, 울컥하는 벅찬 감정과 함께 뜨거운 눈물이 흘렀다.

나이 오십 넘어 회사에 인턴으로 근무하게 된 게 뭐 그리 좋은 일이냐는 사람도 있겠지만 퇴직 후 몇 년간 방황했던 시간을 떠올려보면 내게 이번 합격은 단순한 취업이 아니라 새로운 비상을 위한 시작이기 때문이다.

광고회사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이자 프리랜서 활동도 병행하면서 나름 좋은 성과와 많은 성취를 이뤄냈던 나였다. 하지만 달이 차면 기운다고, 너무 자만했던 걸까? 나이 오십을 목전에 두고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리기만 하던 그때, 영업을 확대해 프리랜서 활동만 집중하자라는 생각으로 퇴사를 결심했다.

하지만 한 순간이었다. 예상과 달리 코로나가 터졌고, 경제상황이 위축될수록 일감은 줄어들어 결국엔 반백수처럼 지낼 수 밖에 없었다. 간간히 들어오는 일을 하며 ‘나는 백수가 아닌 프리랜서야’라며 알량한 자존심으로 견뎠지만, 은행 잔고는 줄고 투자는 실패하고, 무엇보다 하는 일 없이 하루종일 지낸다는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렇게 1-2년을 술과 함께 허송세월로 보내며 참 많은 방황을 했다.

새로운 일을 해보자는 마음에 음식점 주방일이며 택배 일이며 이것저것 도전해 보았지만 익숙하지 않은 분야의 일은 손에 쉽게 익지 않았고, 짧게는 몇 주에서 길게는 몇 달까지 일을 쉬다 하다를 반복했다. 결국 원래 해왔던 분야로 취업하기 위해 취업사이트를 수시로 확인하고, 수십 군데 회사에 지원했지만 이미 오십이 넘어버린 나를 고용하겠다는 곳은 없었다.

그러다 「4050인턴십」 모집공고를 발견했다. 처음엔 설마 싶었지만 정말 50세가 넘어도 인턴으로 채용해준다는기에 지원했다. 오래간만에 받아보는 면접 연락에 설레는 마음으로 단단히 준비했지만 첫 번째 회사는 보기 좋게 불합격. 하지만 다시 ‘오로라 파이프’라는 스타트업 기업에 지원하여 면접 기회를 얻었다.

이번에는 직접 면접관에게 적극적으로 나 자신을 어필했다. 오히려 과제를 내달라고, 그 테스트를 통해 공정한 심사를 받고 싶다는 나의 제안을 회사에서는 좋게 받아들여 입사를 위한 과제를 내주었다. 주말 내내 그 일에 붙든 끝에 결국, 합격이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다.

그렇게 한 달을 근무한 지금, 나는 무척이나 만족하며 지내고 있다. 물론 나이 오십에 인턴이라는 상황이 조금 축스럽기도 하고, 예전 직장 근무할 때 받던 급여와 차이가 많이 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사회생활을 시작했던 이십 대 때처럼 요즘은 아침마다 의욕이 샘솟고, 살아있음을 느낀다.

나이 오십에 인턴이라는 상황이 조금 쑥스럽기도 하고, 예전 직장 근무할 때 받던 급여와 차이가 많이 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사회생활을 시작했던 20대 때처럼 요즘은 아침마다 의욕이 샘솟고, 살아있음을 느낀다.



인턴으로 근무하고 있는 회사 ‘오로라 파이프’의 좋은 점 중 하나는 내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수평적 조직문화를 갖췄다는 점이다. 대표님 이하 모든 직원들이 연령과 직급에 상관없이 무조건 ‘OO님’으로 호칭하며 서로 존중하는 문화가 있다. 회사생활을 하다 보면 일 외적으로 누구나 겪게 되는 ‘관계에서 오는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다.

요즘 이 곳에서 나는 공연, 이벤트 등 프로모션 행사기획을 하거나 기업의 세미나, 포럼 등의 유치를 위한 제안서 작업을 하고 있다. 용어에서 업무 프로세스까지 모두 생소한 분야지만, 큰 차원에서는 내가 했던 광고마케팅과 맞는 부분이 많아 빠르게 적응한 편이다. 나이 차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나보다 경험이 많은 ‘어린 선배님’들의 배려 덕분에 차근차근 일을 배워나가고 있다.

현장 일이 많은 것도 즐겁다. 전에는 하루종일 사무실에만 앉아 일했는데, 이제는 행사 특성상 무대부터 영상, 음향연출까지 장비를 하나하나 옮겨 셋팅하고 리허설을 해야 한다. 물론 무거운 장비를 옮기느라 힘들때도 있지만 현장이 주는 에너지와 생동감 넘치는 분위기 덕분에 즐거움이 더 크다.

오늘은 그동안 준비했던 기업체 포럼 행사를 성공적으로 끝내고, 직원들과 서로 수고했다는 격려를 나누며 퇴근했다. 집으로 돌아오며 이런 생각이 들었다. 그동안 길을 잘못 들어 잠시 헤맸을 뿐, 이제는 내가 가야 할 새로운 길을 찾는 것일지도 모르겠다고.

앞으로는 늦을지언정 멈추지 않고 걸겠다. 아니, 달려야겠다. 그렇게 달리다 보면 10년 뒤, 5년 뒤, 당장 1년 뒤 나는 어디에 서 있을까 생각해본다. 어쩌면 지금 근무하는 회사가 아닐지도 모를 일이다. 하지만 상관없다. 이번 4050인턴십에서 내가 배운 건 꿈이 있는 한, 계속 도전해 보라는, ‘인턴은 나이가 아니라 열정을 품은 사람이다’ 라는 것이다.

마음 속이 뜨거워지며 다시 다짐해 본다.

포기하지 말자, 살아있는 동안 열정을 갖고 힘차게 비상하자.

이젠 나의 날개를 다시 힘차게 펴보자!

수상자 미니 인터뷰

박준형 님

인턴으로서 일하면서 새롭게 발견한 점이 있을까요?

중장년 인턴은 이미 일 경험이 풍부하다보니 현재 상황과 상대가 요구하는 핵심을 직관적으로 빨리 파악하는 장점이 있어요. 내가 일했던 분야이거나 비슷한 맥락을 가지고 있다면 더 그렇고요. 하지만 내게 익숙한 일 패턴만 고집하면 안되는 것 같아요. 젊은 친구들과 이야기 나누면서 요즘 업계 트렌드는 어떤지, 새로운 업무 툴은 어떤 게 있는지 배우는 것이 필요하죠.

인턴십 하고 있는 회사에서는 업무 처리를 거의 노션과 메신저로 합니다. 모든 업무 프로세스를 노션으로 파악하고, 키포인트도 그걸로 다 해요. 대부분의 소통은 메신저로 하고요. 사실 저에겐 생소한 툴이고 방식이라 처음에는 쉽지 않았지만 지금은 잘 쓰고 있습니다. 손에 익기만 하면 빠르고 효율적이예요.

미래를 준비하는데 인턴십 경험이 어떤 도움이 될까요?

일 흐름을 놓치지 않게 되었어요. 인턴십이 끝나고 혹시 창업을 하더라도 내가 잘 안다고 생각했던 그 분야 지식이 이미 지난 것일 수 있거든요. 인턴십을 하면서 요즘 업계 동향이나 트렌드, 문화를 자연스럽게 파악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다들 힘들다고 하지만 회사 생활은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안정감을 주기 때문에 그런면에서 도움이 되기도 하고요.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는 경험과 포트폴리오를 쌓을 수도 있죠.



앞으로 재단 인턴십에 참여하게 될 분들에게 조언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SNL의 'MZ오피스'라고 회사 생활을 재미있게 그린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젊은 친구들이 많은 회사는 그곳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직함이 따로 없이 서로 'OO님'으로 부르다든가 대면 보다는 메신저로 소통을 더 많이 한다든가. 처음에 낯설긴 한데, 그게 조직의 본질은 아니잖아요. 오히려 장점이 많기도 하고요. 그런 점에서는 우리가 맞춰야죠. '라떼는 말이야~'로 나가면 안됩니다.

무엇보다 나보다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절대 가르치려고 들지 마세요. 말 그대로 인턴인만큼 인턴의 자리에서 동료들을 존중해야 합니다.

외국인 유학생과 기업을 잇는 다리가 되길 | 창업컨설팅

이중건

안녕하세요, 통신/반도체분야와 HR 컨설팅 기업을 운영하다가 57세에 다시 창업의 길을 걷고 있는 비욘드커리어(BEYOND CAREER) 대표 이중건입니다.

저는 지난 8년간 국내외 인재와 기업을 연결하는 일을 하며 두 가지 필요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구인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들과 취업의 기회를 갖기 어려운 국내 외국인 유학생들이었습니다.

외국인 유학생들은 우리나라 대학에서 공부를 마친 후에도 언어, 문화, 비자 같은 장벽에 가로막혀 취업이 쉽지 않습니다. 한편 요즘처럼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한국의 중소기업들은 다문화적 감각을 지닌 글로벌 인재를 원하고 있지만 인력난에 시달리며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저는 두 집단의 고민이 절묘하게 맞물려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이들을 잇는 플랫폼으로 만들어보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비온드커리어는 유학생들의 직무 역량과 성향을 AI 기반으로 평가하여 기업에 적합한 인재를 추천하는 데이터 기반의 매칭 시스템입니다. 단순한 채용 공고나 이력서 검토를 넘어서는 혁신적인 방식으로 유학생들은 자신있게 취업에 도전하고, 기업은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여 필요한 인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르바이트, 법률 상담, 금융, 주거 정보 등 다양한 생활 지원 서비스도 제공하여 유학생들이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뿌리 내리도록 돕고 있습니다.

제가 중장년의 나이에 이 모든 도전을 시작하게 된 이유는 단순히 수익을 추구하기보다는 우리 사회에 가치있는 일을 하고 싶다는 소명의식 때문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경험과 네트워크로 외국인 유학생들이 한국에서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장을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비온드커리어가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안정적인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동시에 기업들은 필요한 인재를 확보할 수 있는 든든한 다리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창업 과정과 서울시50플러스재단의 지원

사업 모델을 구상하고 비즈니스 계획을 세우는 데에는 자신 있었지만, 창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예상치 못한 벽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금 조달부터 서비스 개발, 효과적인 홍보 전략 등 모든 것을 혼자 해결하기엔 역부족이었고, 관리의 무게가 실감되는 순간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이때 지인을 통해 서울시50플러스재단의 창업 컨설팅 지원사업을 알게 되었습니다.

재단의 컨설팅은 말 그대로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단순한 정보 제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창업의 필수 과정을 세세히 짚으며 한 단계씩 저를 이끌어주었습니다. 매주 필수 교육과 1:1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사업계획서 작성, 투자 유치를 위한 IR 자료 준비, 피칭 요령 등 실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전문적인 가이드를 받았 습니다. 또한 매번 제 사업 아이디어와 자료들을 깊이 있게 검토하여 구체적인 피드백도 제공해 주었습니다.

덕분에 사업계획서는 점점 더 구체적이고 고도화 되었으며, 사업 비전 또한 한층

창업컨설팅은 창업 초기 망망대해에 빠진 저에게 말 그대로 등대 같은 존재였습니다. 재단의 지원이 없었다면, 지금의 비욘드커리어가 그리는 구체적인 미래도 없었을 것입니다.



선명해졌습니다. 불안했던 초기 창업가는 어느덧 조금씩 자신감을 갖춘 사업가로 변모하여 비욘드커리어가 성공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겠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창업컨설팅은 창업 초기 망망대해에 빠진 저에게 말 그대로 등대 같은 존재였습니다. 재단의 지원이 없었다면, 지금의 비욘드커리어가 그리는 구체적인 미래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제 이 소중한 배움과 경험을 바탕으로 비전을 현실로 만들어 가려 합니다.

비욘드커리어가 단순히 한 기업의 성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 필요한 가치를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자리잡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희 비욘드커리어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기업들에게는 다문화적 시각과 감각을 지닌 인재를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성장하기 위해 꾸준히 나아갈 것입니다.

또한, 중장년 창업가들에게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영감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업은 더 이상 젊은 층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저처럼 중장년에 이르러서도 경험과 신념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자 하는 이들이 점점 늘어날 것이라 믿습니다.

수상자 미니 인터뷰

이중건 님



창업을 준비하시면서 어떤 점이 가장 어려웠나요?

회사를 경영했던 경험이 있어서 어렵지 않을거라 생각했는데, 스타트업을 창업해서 키워가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일이었어요. 정부에서 하는 창업지원사업에서 도움을 받아보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원사업을 모아놓은 책자가 사전만하게 두껍더라고요. 저한테 맞는 지원사업이 어떤 건지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50플러스재단의 창업컨설팅을 받고 해답을 찾았죠. 아무데나 지원하는게 아니더라고요. 내 스타트업이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 어느 부분에 가능성이 있는지 그런걸 먼저 파악하고 있어야 했어요. 강의 5-6개를 들으며 하나하나 알게 됐고 정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사업소개서에는 뭘 답아야 하는지, 하다못해 발표할 때의 애티튜드나 목소리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이런 것까지 세세하게요. 모르고 덤비면 굉장히 어렵고 힘든건데 체계적인 맵을 갖고 준비하니 훨씬 수월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었죠.

서울시50플러스재단에서 하는 창업컨설팅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사실 ‘창업 컨설팅’이라는 프로그램은 창업사관학교라든지 다른 기관에에서도 많이 해요. 하지만 대부분 청년을 대상으로 하다보니 주저하게 되고, 웬지 그쪽에서도 저를 원하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56세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다는 것도 어디가서 말하기 민망했어요. 하지만 50+재단은 달랐죠. 40-60세대가 중심이 된 컨설팅이기 때문에 일단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다 제 또래니까요. 50플러스재단이라는 이름도, 중장년 창업을 도와주는 것도 참 감사하고 좋습니다.

중장년 세대는 어떤 관점에서 창업에 접근하면 좋을까요?

청년들은 반짝반짝한 아이디어가 무기라면, 늦은 나이에 창업하는 우리는 그동안 쌓아온 노하우와 전문성, 그 분야의 인맥이 힘이 되거든요. 중장년은 그동안 일해왔던 분야가 분명히 있잖아요. IT, 금융, 미디어 등등. 일하다보면 ‘아, 요런 거는 누가 하면 좋을텐데’하는 생각 누구나 한 두 번은 하거든요? 그런 아이템을 구체화해서 사업을 만들어간다면 큰 리스크 없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기가 하던 것 안에서 창업 아이템을 찾아보면 좋겠어요.

그리고 자칫하면 그동안 모아둔 돈을 날릴 수도 있다는 걱정 때문에 창업을 망설이는 분도 있을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창업컨설팅을 받다보니 ‘예비창업 패키지’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창업 전에 미리 정책자금을 매칭하는 거죠. 사실 찾아보면 정책자금 사업은 많아요. 프로세스를 펼쳐놓고 지금 나의 단계에 필요하고 가능한 정책자금은 어떤 건지 스케줄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안의 두려움을 넘어 세상을 향하는 길로 | 4050직무훈련

박상일

“박 선생님! 「디지털금융강사 양성과정」이 나왔는데 한 번 지원해 보시죠?”

봄빛이 찬연한 어느 날 오후, 어르신 스마트폰 활용 교육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동료 강사 선생님께서로부터 전화가 왔다. 이때가 시작이었나보다. 인생 후반기의 새로운 체인지업이 시동을 걸었다.

나는 IT회사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주로 IT 마케팅과 기술영업 분야에서 일했다. 40대 중반에 IT 관련 대기업을 나와 업계 지인들과 네트워크 솔루션 벤처에 과감하게 도전했지만 실패했다. IT에 정떨어져서 혼자 작은 주점을 개업했다. 경험이 없던 나는 또 실패했다. 다시 IT 업계로 돌아와 지방회사에 다니던 나는 그동안의 스트레스와 피로로 안면마비에 걸렸는데 너무 심해서 입원은 물론 망가진 얼굴 때문에 거의 1년동안 집밖에 나오지 못했다. 어느정도 치료가 된 이후에도

입과 눈에 큰 후유증이 남아 사람 만나기를 피했고, 이대로 인생 끝이라는 공포로 우울증에도 시달렸다. 내가 말하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싫었다. 말할 때마다 비틀어지는 눈과 입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두려워 보여줄 수가 없었다. 이제 프리젠테이션도 강의도 끝이었다.

낙오자처럼 여러 중소기업들을 전전하며 10년 넘게 위축된 생활을 이어갔다. 그러다 50대 말에 나는 스스로 은퇴했다. 더이상 위축된 삶을 살고 싶지 않았다. 딱히 앞날에 대한 계획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그냥 해방되고 싶었다. 그러다 시작한 것이 시니어 선생님들을 위한 스마트폰 활용 강사였다. 별이는 크지 않았지만 보람되었고 내 직장경험으로 잘할 수 있는 일이었다. 게다가 한두 명의 수강생 옆에 나란히 앉아 각자의 스마트폰을 보면서 하는 실습 위주 교육이라 서로 얼굴 쳐다볼 일이 별로 없다는 것도 좋았다.

그렇게 시작한 지 벌써 5년째. 조금씩 매너리즘에 빠지기 시작했고 강사 활동을 계속 이어 나가기 위한 새로운 동력이 필요했다. 강의 폭을 전문화하고 질적으로도 성장하고 싶었다. 마침 그럴 때 전화가 온 것이다.

하지만 수강생 모두가 앞에 있는 강사 얼굴에 집중하며 바라보는 형태의 강의라니 생각만해도 숨이 막혀왔다. 이미 성큼 다가온 두려움이 나를 사정없이 뒤로 밀어내고 있었다. 그러나 나는 결심했다. ‘앞으로 나아가야 해. 성장할 기회마저 잡지 않는다면 나는 또 실패하는 거야. 일단 양성과정을 하면서 길을 찾아보자.’

절실한 마음으로 지원서를 작성했고 떨리는 면접을 걸쳐 「4050직무훈련 디지털 금융교육 강사 양성과정」에 합격했다. 첫 수업시간에 만난 동료들의 눈이 기대와 열망으로 푹푹뚫었다. 모두가 한배를 탄 동료들이란 생각에 마음이 든든했다.

교육은 8회에 걸쳐 진행되었는데 어르신들에 대한 이해 및 교수방법, 디지털 금융 이해, 모바일 banking, 인터넷 쇼핑, 간편결제, 보안 및 범죄예방 등 디지털 금융 교육을 위한 필수적인 내용들이 순차적으로 진행되었다. 물론 강의 시연도 포함되어 있었다. 나는 두 번의 강의 시연을 했는데 나에게는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했다. 내가 다시 강사로서 자리에 설 수 있는 동력을 이 기회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었다.

수업 차시가 거듭되면서 강의에 대한 두려움은
점점 극복 되어갔고, 강의 마지막 날이 되자
나는 어느새 본질이라는 무기로 나 자신의 두려움과
싸워 이긴 투사가 되어있었다.

나는 이번 직무 훈련을 통해서 인생 후반기의 물줄기
를 돌리고 새로운 길을 찾아 하루 하루를 성장으로
채우고 있다.

첫번째 강의 시연에서는 얼마나 긴장을 했는지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눈가가 파르르 떨린다.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나의 얼굴이 어떻게 비쳐질지, 발음은 어눌하 지 않은지 여러 걱정에 무슨 말을 했는지도 잘 기억나지 않지만 나를 주시하던 수십 개의 눈만큼은 무서울 정도로 또렷이 기억난다. 하지만 동시에 몸 속 깊이 내재되어 있던 강의 열정이 서서히 깨어나기 시작했다. 어느새 말할 때마다 비틀어지는 얼굴 표정은 포기하고 발음도 새건 말건 강의에 몰두하게 되면서 나는 새로운 세상으로 향하는 문을 열어젖히고 있었다.

두번째 시연은 조금 더 쉬웠다. 얼굴에 대한 걱정을 포기하고 나니 강의 전달에만 신경이 쓰였다. ‘그래, 본질은 강의 내용과 효과적인 전달이지 일그러진 내 얼굴 모양이 아니야. 그건 부차적인 문제야. 사람들은 내 얼굴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걸 알겠지만 강의에 대한 내 진심과 열정이 그것을 상쇄하고 넘어설 수 있어.’

양성과정을 마치고 강남노인복지관에 배정되어 수업을 시작했을 때도 나는 오직 내 진심이 교육생 선생님들에게 닿기만을 바랐다. 그동안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나만의 강의 콘텐츠를 준비하고 또 준비하며 진심을 담았고 수업에서 연마했던 목소리와 손짓 하나, 시선 하나에도 열정을 가득 담았다. 수업 차시가 거듭되면서 강의에 대한 두려움은 점점 극복 되어갔고 강의 마지막 날이 되자 나는 어느새 본질이라는 무기로 나 자신의 두려움과 싸워 이긴 투사가 되어있었다.

정답은 이미 나와 있었는지도 모른다.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긍정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라는. 하지만 안다고 해서 길을 찾고 실행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의 4050직무훈련은 나에게 ‘항상 본질에 충실하라’는 정답에 이르도록 문을 열어주고 새롭게 성장하는 발판도 되어주었다.’

나는 이번 직무 훈련을 통해서 인생 후반기의 물줄기를 돌리고 새로운 길을 찾아 하루 하루를 성장으로 채우고 있다. 그리고 스마트폰 활용 강사라는 직함에 이제는 ‘디지털 금융 강사’라는 확실한 한 줄을 더 했다.

올 여름에 강의했던 강남노인복지관에서 연락이 왔다.

“선생님, 저번 교육이 너무 훌륭해서 이번에도 강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오늘도 부지런히 시니어 선생님들을 위한 디지털 금융 교육에 나선다.

막연한 관심에서 이제는 구체적인 미래로 | 4050직무훈련, 4050인턴십

최석재

20여 년이 넘는 외국계 회사생활을 마감하고 개인적 관심과 향후 전망 등을 고려하여 관광업계 진출을 모색했습니다.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이 있으니 그래도 뭔가 되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가 있었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그러던 중 인터넷을 통해 서울시50플러스재단을 알게 되었습니다. 큰 기대는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혹시 현업으로의 가교 역할을 해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지 않을까 알아보기 위해 50+상담센터 문을 두드렸습니다. 운 좋게도 저보다 훨씬 더 적극적인 컨설턴트 선생님을 만나 「여행상담사 양성과정」에 참여하여 약 한 달동안 인덕대학교 교수님들의 열정적인 강의를 듣게 되었습니다.

관광산업에 대한 전반적 지식, 업계동향, 경쟁상황, 갖추어야 할 제반사항 등의 이론과 현장에서 필요한 노하우 등을 학습하며 업계진출을 위한 기본도대를

뒀습니다. 이에 더하여 현업에 있는 분들과 어느 정도 대화할 수 있는 정도로 발전된 것은 매우 고무적이었습니다.

열정적으로 가르쳐주신 교수님들도 인상적이었습니다. 관광학 전공자부터 해당 업종의 필드에서 고위직을 역임 했던 분들까지 교육해 주시는 분들의 경험과 배경이 다양한 덕분에 살아있는 정보를 풍성하게 얻고, 학습 효율도 높일 수 있었습니다.

교육이 마무리되어 갈 때쯤 담당 50+컨설턴트로부터 현업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니 「4050인턴십」을 놓치지 말고 참여해 보라는 권유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인턴십에 지원하여 현재 모 여행사에서 근무중입니다. 여행상품 기획부터 홍보, 외국인 관광객 통역업무까지 제가 희망했던 업무 영역을 두루 거치고 있습니다. 학습만으로는 막연했던 부분들이 확실해지고, 실무 역량에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이 일이 내가 꾸준히 할 수 있는 일인지, 내 적성에는 맞는 건지, 실패에 대한 두려움 등의 고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교육과 인턴십을 거친 지금은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겨 고민 없이 직진하고 있습니다.

저를 인턴으로 선택해 준 회사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책임감에 이전 회사에서 쌓아왔던 영업 및 마케팅 경력을 활용하여 회사 영업에 기여하고자 노력 중입니다. 제가 가진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고, 때로는 제 의견이 비중있게 다루어지는 경우가 있어 자신감이 커집니다.

인턴십 이후의 고용은 현재 회사와 논의 중이지만 고용이 되든 프리랜서로 활동하게 되든 관광업 진출이라는 제 도전에는 변화가 없을 것입니다. 꼭 어떤 보상이나 거대한 결과를 기대하기 보다는 즐거운 마음으로 꾸준히 일할 수 있고, 사회 구성원로서의 역할을 계속 이어 나갈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치동 입시강사, 에듀테크 소셜벤처 창업가 되다 | 창업컨설팅

장진민

저는 사교육으로 유명한 대치동에서 19년 동안 입시강사로 일해왔습니다. 매일 일찍 일어나 강의 준비를 하고, 밤늦게까지 학생들의 질문에 답하며 지냈지만, 어느 순간 마음 한구석에는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교육에 대한 열정으로 시작했던 제 삶이 어느새 기계적인 반복으로 변해버린 것 같았습니다.

이런 고민을 주변에 털어놓기도 어려웠습니다. 안정적인 직업과 수입을 포기하고 새로운 것을 시작한다는 건 큰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변화를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창업컨설팅 지원」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사오십대를 위한 재도약 지원이라는 소개에 마음이 끌렸습니다.

‘내가 참여해도 될까?’ 하는 걱정에서 인터넷 창을 열었다 닫았다 반복하다가 결국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은 제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첫날, 저는 설렘과 긴장감을 안고 교육장에 들어섰습니다. 다양한 배경의 동년배 참가자들을 만나며 제가 했던 고민이 저만의 고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에 공감했고, 함께 성장해 나가기로 다짐했습니다.

컨설팅 과정에서 배운 최신 기술과 트렌드 중에서도 특히 에듀테크 분야가 무척 흥미로웠습니다. 숏폼 콘텐츠의 가능성, AI 기술을 활용한 교육 방법 등은 제가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였습니다. 제 오랜 경험과 기술을 결합하면 더 큰 가치를 창출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숏폼 강의 플랫폼은 현대인들의 빠른 생활 패턴에 맞춘 훌륭한 학습방법이었습니다. RAG AI 챗봇을 활용하면 질문에 즉각 답변하고, 개인별 맞춤형 학습을 지원할 수 있다는 점도 매력적이었습니다.

저는 에듀테크 소셜벤처를 설립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물론 쉽지는 않았습니다. 사업 계획부터 자금 마련, 팀 구성 등 모든 것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매 순간이 난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동료들과 멘토들이 보내주는 응원과 조언 덕분에 저는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2024년 창업진흥원 주관 초기창업패키지와 강남구 벤처촉진지구사업에 선정되었고, 에듀테크페어에서는 인공지능 RAG 챗봇서비스로 우수상까지 수상했습니다.

지금의 저는 과거와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매일이 새로운 도전이고, 그 속에서 큰 보람과 행복을 느끼고 있습니다. 학생들과 소통하며 성장을 돕는 일은 제가 원하던 진정한 교육의 모습이었습니다. 또 저희 서비스를 통해 교육의 기회가 부족한 이들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은 저에게 큰 동기부여가 됩니다.

나이는 도전의 걸림돌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변화에 대한 의지와 용기입니다. 저도 두려움이 있었지만, 딱 한 걸음 내딛는 것으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내가 바뀌고, 세상도 바꾸다 CHANGE업!

윤미희

조수연

이유경

하윤수

오창환

변화

무기력했던 내가 활력넘치는 N잡러가 되다니!

기술만 배울 줄 알았는데, 삶이 바뀌었다

고민 끝에 한 작은 도전이 커다란 선물이 되어 돌아오다

실패를 딛고 일어난 재취업 여정

움츠려있던 내가 긍정적이고 도전적으로 변하기까지

무기력했던 내가 활력넘치는 N잡러가 되다니! | 경력설계 상담, 채용설명회

윤미희

2021년, 나는 깊은 우울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녀들은 다 성장해서 각자 자리를 잡았고, 남편은 여전히 바쁘게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지만, 나는 매일 몸이 무겁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 누구도 나의 이런 무기력감을 이해하지 못했죠. 심지어 가족들조차 나에게 ‘이제 걱정할 일이 뭐가 있냐’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나름대로 여러 가지 활동을 해봤습니다. 교회 봉사도 하고, 여행도 다니고, 친구들과 다양한 취미활동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의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를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우연히 길가에 펼쳐있는 현수막이 눈에 띄었습니다. ‘서울시50플러스 서부캠퍼스’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하는 곳일까?’ 50플러스라는 단어가 계속 마음에 남았습니다. ‘50세 이상의 사람들이라면 나도 가도 될까?’ 하는 생각에 용기내어 방문해 보기로 했습니다.

캠퍼스에 들어가서 어슬렁거리다 50+상담센터를 발견했습니다. 주저하며 문을 열고 들어갔지만, 그날의 선택이 내 삶을 얼마나 바꿔놓을지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상담사는 내 이야기를 들으며 나를 진심으로 이해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가치동행일자리(舊 보람일자리)’라는 프로그램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어르신 급식 지원단으로 지원을 하면서, 오랜만에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 나이에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니!’ 지원서를 작성하는 것부터 면접 준비까지 모든 과정을 상담사의 도움을 받아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첫 출근을 하던 날의 설렘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마치 오랜 잠에서 깨어난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급식 지원단으로 일하면서 주부로 지내온 나의 지난 삶이 놀랄만큼 소중한 자산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부시절 만들어진 빠른 손놀림과 주변정리 습관이 큰 도움이 되어 나도 쓸모 있는 사람이란 확신이 들었고, 자신감이 되살아났습니다.

12월이 되어 활동은 끝났지만, 나는 그 이후에도 봉사자로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내 손길이 필요한 곳에서 일을 하다 보니 나 자신도 점점 활기차고 생기있는 사람이 되어 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2023년, 또다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상담센터 담당자가 맥도날드 크루를 모집한다고 추천해 준 것입니다. 맥도날드? 젊은이들이 가득한 곳인데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잠시 망설였지만, 나는 이미 더 이상 무기력한 내가 아니었습니다. 도전해보고 싶었습니다. 면접 준비도 열심히 했고, 설레는 마음으로 설명회에 참석해 면접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합격! 맥도날드에서 일하게 된 나는 또다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장 청소를 하고 메뉴 주문을 받는 일이 낯설고 어렵기도 했지만, 어느새 포스기 메뉴 위치를 외우고 고객들을 응대하며 음료 및 디저트 담당까지, 비록 단시간 근무였지만 다방면으로 다가오는 업무를 세심하게 챙기며 점차 적응해

지금 나는 3가지 일을 하며 내 인생의 어떤 시기보다
활기차고 보람찬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나를 무기력에서 활력으로 변화시킨 이 모든 기회들은
우연히 찾아간 50+상담센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근무하던 매장이 철수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크게 낙담했습니다. 하지만 접장은 나에게 새로운 매장으로 옮겨 함께 일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열심히 일한 보람이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새로운 지점에서 일하게 되면서 나는 50여 명의 아르바이트생들과 함께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가장 나이가 많았지만, 동료들과 서로 배우고 즐겁게 일하다 보니 어느새 1년이 흘렀습니다.

열심히 일한 결과, 베스트 파트너로 선정되는 영광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기쁜 소식은 또 다른 일자리 제안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함께 일했던 동료가 편의점을 오픈하면서 나에게도 일을 해달라고 부탁한 것입니다. 내가 맥도날드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을 보고 신뢰가 생겼다는 이유였습니다.

지금 나는 3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가치동행일자리 활동, 맥도날드 크루, 그리고 편의점 아르바이트까지. 내 인생의 어떤 시기보다 활기차고 보람찬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나를 무기력에서 활력으로 변화시킨 이 모든 기회들은 우연히 찾아간 50플러스 상담센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앞으로 체력이 허락하는 한, 나는 이 에너지 넘치는 삶을 이어나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준 서울시50플러스재단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수상자 미니 인터뷰

윤미희 님



젊은 사람도 하기 힘든, 3개 직업을 소화하는 에너지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어르신 급식 지원단은 주 5일 오전에만 출근하고, 맥도날드와 편의점에서는 주3회, 네다섯 시간씩 일하고 있습니다. 조금 피곤할 때도 있지만 업무에 대한 책임감과 그 일에서 오는 즐거움이 오히려 저 스스로 자랑스럽게 만들기도 합니다. 급식 지원단은 말 그대로 보람과 뿌듯함이 크고, 맥도날드와 편의점에서는 나의 쓸모를 확인 하면서 성취감을 느끼는 것이 저를 움직인 원동력인 것 같아요.

재단과의 첫 만남이기도 한 50+상담센터에서 경험이 각별하신 것 같아요.

제가 한 가지를 이야기 하면 열가지를 파악하여 명확하게 알려 주세요. 항상 따뜻한 미소와 함께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는 컨설턴트가 있다는게 큰 힘이 돼요. 언제든지 전화하고 찾아가서 궁금한 점을 문의하고 조언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이 든든합니다.

중장년이 되어보니 자꾸 자신감이 떨어지고,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다는 부정적인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럴 때 나의 쓸모를 찾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가까운 50플러스 캠퍼스를 방문하여 상담센터에 꼭 가보라고 하고 싶습니다.

맥도날드 중장년 크루로서 선생님만이 가진 장점과 강점은 무엇일까요?

주부경력인 것 같아요. 제 성격이 짹짹하고 친절한 편이기도 하지만 살아온 세월에서 얻은 삶의 지혜는 저만이 가진 강점이라고 생각해요. 고객이 지금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자연스레 느껴지는건 살아온 시간 덕분 아닐까요? 함께 일하는 크루 대부분이 2000년대생이어서 마치 제 조카들을 보는 것 같더라고요. 이 친구들이 힘들어 하거나 껴는 일은 제가 먼저 나서서 하다보니 젊은 크루들과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N잡러로서 또 도전하고 싶은 다른 직업이 있을까요?

복지관에서 어르신들께 스마트폰 사용법을 대해 알려 드리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어르신들이 스마트폰을 더 잘 활용할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해보고 싶어서 요즘 교육도 받고 있어요. 내년에는 직업이 또 하나 추가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술만 배울 줄 알았는데, 삶이 바뀌었다 | 40대 특화 직업전환 전문교육

조수연

자녀의 성장이 곧 내 인생의 성장이라 믿었지만, 오십이라는 나이에 다가서며 느낀 소외감과 무력감은 나를 작게 만들었다. 예상보다 길어진 경력단절은 나에게 점점 자신감을 잃게 만들었고, 그 어떤 활동에도 참여하기 어려운 상태로 만들었다. 아이들을 키우는 일에 집중하며 나를 돌아보지 못했던 시간은 나를 더 이상 나 자신이 아닌, ‘누구의 엄마’라는 정체성에 가둔 듯 했다.

그런 중에 우연히 서울시50플러스재단의 40대를 위한 직업전환 프로그램 「KT AI 코딩 공인강사 2급 과정」을 알게 되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로 결심했을 때, 나는 코딩이라는 생소한 분야에 대한 두려움과 설렘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지원하지 말까도 생각했으나 자격증을 취득하고 강사로 활동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생각하니 마음이 설레었다.

새로운 시작이 나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다줄지에 대한 기대가 커져갔고, 그 과정에서 나 자신을 다시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도 생겼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생긴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직업 전환의 경험이었다. 처음에는 코딩이 생소하고 적응하기 어려웠지만 교육을 받다보니 이 분야가 얼마나 흥미롭고 실용적인지 깨닫게 되었다.

코딩 기초부터 활용까지 폭 넓게 배우며 나는 점차 두려움을 극복하고, 수업 내용을 이해하는 즐거움을 느꼈다. 특히, 실습을 통해 나만의 프로젝트를 완성해 나가면서 작은 성취감도 맛볼 수 있었고, 자격증 취득은 자기 효능감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배우는 과정에서 만난 다른 참가자들과의 소통도 빼놓을 수 없다. 동료들은 나에게 정서적으로 큰 힘이 되었고, 서로의 경험을 나누며 지식을 보완하는 도움을 주기도 했다.

KT AI코딩 공인강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강사로서의 새로운 길을 본격적으로 걸어가기 시작했다. 첫 강의 요청이 들어왔을 때, 긴장되기도 했지만 동시에 설레기도 했다. 그동안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수업을 준비하며 점차 자신감을 되찾게 되었다. 아이들이 내 수업을 통해 코딩의 재미를 느끼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이 일이 적성에 딱 맞는구나’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점점 강의 요청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교육회사와 고정적인 관계도 형성되었고, 나를 찾는 교육 기관이 생기기 시작했다. 이는 내 직업적 성공뿐만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한 신뢰와 자존감을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나는 코딩 강사로서의 경력을 쌓아가는 동시에 새로운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한 자기계발에 힘쓰고 있다. 최근에는 생성형 인공지능(Chat-GPT) 관련 강의를 들으며 빠르게 성장하는 기술의 변화를 따라잡기 위해 노력 중이다.

육아로 인해 길어졌던 경력 단절 기간 동안, ‘엄마’라는 역할에만 전념했지 정작 자신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스스로를 재발견하게 되었고, 나의 삶의 태도와 목표를 다시금 돌아보게 되었다.

실질적인 직업 전환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참여자들이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다.
나도 코딩 강사로 활동하게 되면서 이 프로그램의
진정한 가치를 느낄 수 있었다.



내 경험을 바탕으로 이 프로그램이 지닌 몇 가지 추천 포인트를 강조하고 싶다.

첫째, 다양한 교육 기회다. 40대 이상의 중장년층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들은 참여자들에게 새로운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와 함께 삶의 방향성을 찾는 데 큰 도움이 된다. 나 역시 코딩이라는 기술을 배우고 이를 활용할 자신감을 얻었다.

둘째, 지원과 소통의 장이다. 다양한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격려받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다른 참여자들과의 소통은 책에서 얻을 수 없는 다른 차원의 배움이었고, 이를 통해 나 자신을 더욱 발전 시킬 수 있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날 기회가 적은 중장년에게 네트워킹은 매우 중요한 자산이 된다.

셋째, 자기 계발의 기회다. 단순히 직업을 바꾸는 것을 넘어 자기 계발과 성장의 계기가 될 수 있다. 나는 이 과정으로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고, 삶의 태도를 변화시키는 전환점을 마련했다. 이는 나의 인생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넷째, 실질적인 직업 전환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참여자들이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다. 나도 코딩 강사로서 활동하게 되면서 이 프로그램의 진정한 가치를 느낄 수 있었다.

육아로 인해 길어졌던 경력 단절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나는 이제 내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되었다. 이러한 놀라운 변화를 다른 사람들도 경험하길 바라며, 서울런4050 프로그램을 적극 추천한다.

수상자 미니 인터뷰

조수연 님



코딩 강사 과정을 어떤 계기로 선택하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문과 졸업하고 사무직으로 일했지만 엑셀에 관심이 많았어요. 내가 편하게 일하려고 로직 짜고 그랬죠. 회사 그만두고 육아를 하면서 아기 돌잔치 포스터 만드느라 포토샵 같은 디자인 프로그램하고 자연스럽게 친해졌어요. ‘아, 나는 컴퓨터 프로그램 익히는데 관심이 있구나’ 막연하게 생각이 들었죠.

사실 다른 기관에서 하는 코딩 교육도 들어봤어요. 하지만 거기는 파이썬 위주고, 컴퓨터공학 전공한 20-30대 젊은 친구들이 와있더라고요! 저와는 실력 차이가 너무 크니까 주눅도 들고, 웬지 내가 있으면 안되는 자리 같았어요.

서울시50플러스재단에서 하는 코딩 과정은 블록코딩 위주라 초보자인 저에게 맞았고, 공감대가 형성되는 비슷한 또래들과 같이 들으니까 마음도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전에 들었던 이런저런 과정들은 배워도 써먹을데가 없어 불만이었는데, 이걸 수업연계 기회가 있다는 말에 괜찮겠다 싶어서 지원했습니다.

교육부터 자격증 취득, 강사 활동까지 사실 쉽지 않은 과정인데 끝까지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집근처 서대문50플러스센터에 갔더니 비슷한 니즈를 가진 사람들이 많았어요. 나만 이렇게 아니고, 난 혼자가 아니라는 기분이 참 위로가 되더라고요. 센터 담당자가 용기를 북돋아주셔서 그것도 심리적으로 큰 도움이 됐어요.

사실 처음에는 잘할 수 있을지 두려움도 있었어요. 하지만 동료들과 함께 하는 거니까, 나만 초짜고 나만 못하는게 아니니까 물어갈 수 있겠지 하는 생각에 용기가 나더라고요. 학생들은 우리 애들 같아서 편하게 대하고 있어요.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중장년 경력단절 여성들에게 조언을 한다면?

재단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무척 많은데 일단 다 들어보라고 하고 싶어요. 일 연계 사업도 많은데 경력과 경험이 쌓여야 다른 회사에 지원하는 자신감이 생기니까 폐이가 낮아도 지원해 보세요. 이것저것 다 들어보고 나서 나에게 맞는 핏을 찾아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자기 개발하는 게 어떨까요. 경력단절 이전 일과 달라도 상관 없어요. 요즘엔 정말 직업이 다양하더라고요.

10년, 20년 후 선생님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

얼마 전에 관련 분야 대학원에도 진학했거든요. 대학 강단에서 좀 더 규모있는 수업으로 인사이트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고민 끝에 한 작은 도전이 커다란 선물이 되어 돌아오다 | 가치동행일자리

이유경

대학교 졸업 후 14년 정도 유치원 교사와 어린이집 원장으로 근무하며 아이들과 함께 풍요로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암진단을 받고, 이어 어린이집까지 폐원하게 되었습니다. 3년 동안 항암치료와 코로나를 거치며 거친 파도에 홀로 남겨진 배처럼 절망감에 가득찬 채 보냈습니다.

2023년, 반려견과 산책하다가 강서50플러스센터에서 가치동행일자리 지역사회 복지단을 모집한다는 현수막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역사회에서 복지와 교육의 영역에 관심 갖고 활동하는 사회공헌 사업이라는 것을 검색으로 알게 된 순간, 제 마음은 두근두근한 설렘으로 가득찼습니다. 하지만 이제와서 새로운 것에 도전한다는 것이 두려웠고, '지난 3년 동안 많은 이들의 염려와 걱정 그리고 돌봄을 받던 내가 다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싶어 망설여졌습니다.

긴 고민 끝에 용기를 내어 지역사회복지단에 합격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학교에서 통합 수업과 특수수업을 듣는 장애아동이 안전하게 활동하고 자신만의 속도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었습니다. 여전히 낯선 것에 대한 거부반응이 있지만 조금씩 도전하고 성장하는 아이를 바라보며 저 역시 살아있음을 느끼고 뿌듯함이 차올랐습니다.

그러다 서울시 공무 직종인 ‘특수교육실무사’라는 정규직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수교육지원대상이 된 아동의 학교 내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역할로 당시 보람 일자리 사업으로 진행하는 지역사회복지단과 일맥상통하는 일이었습니다. 일단 장애영유아보육교사자격증을 취득한 후 지역사회복지단으로 근무 했을 때의 경험과 생각을 자기소개서와 면접에서 충분히 녹여서 응시했고, 마침내 합격의 결과를 얻어 올 9월부터 초등학교에서 ‘특수교육실무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작은 도전으로 시작한 일이 점차 큰 선물이 되어 돌아오다니 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흔히들 ‘위기란 위협과 기회가 공존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제가 만난 위기는 암진단이라는 위협이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50플러스재단의 가치동행일자리 사업은 고마운 기회입니다. 항상 영유아교육에만 매몰되었던 제게 더 넓은 세상의 문으로 들어가도록 ‘직업의 전환’이라는 결과를 얻게 해줬으니까요.

아직도 생각이 많아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이라면
여전히 낯선 것에 도전을 두려워하시는 분이라면
앞으로 일상에 보람됨으로 나를 찾고 싶은 분이라면
나의 경력과 경험을 함께 나누고 싶은 분이라면
퇴직 후 재취업으로 노후를 견고하게 하고 싶은 분이라면
어차피 새로운 것을 시도하기에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는 분이라면
일상 속에서 삶의 활력과 성장을 경험하고 싶은 분이라면

내 얘기라 생각이 드는게 한 가지라도 있다면 서울시50플러스재단의 문을 두드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치동행일자리로 세상과 다시 연결고리를 만들어 나가시기를 권합니다. 제 삶의 활력과 보람 그리고 새로운 길잡이를 제공해 준 재단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실패를 딛고 일어난 재취업 여정 | 4050인턴십

하윤수

한 직장에서 오랜 기간 다양한 업무를 익히며 자신감을 쌓았지만, 2019년 서울시 50플러스재단과 현대자동차가 지원하는 (주)상상우리의 '굿잡5060'에 참여한 것이 인생 2막을 준비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5060세대의 퇴직 예정자 및 퇴직자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며, 전문 교육과 멘토링, 다양한 네트워킹 기회를 통해 새로운 직업에 대한 자신감을 심어줍니다.

여기서 얻은 막막한 환경에서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구인정보와 교육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여 사회적기업으로 재취업 했지만 회사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지난해 8월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여러 회사에 지원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동작50플러스센터에서 인턴십 추가 모집 문자를 받고 바로 지원했습니다. 연락이 온 곳은 작년에도 인턴십으로 참여했던 사회적기업 (주)에스에스

엠엠였습니다. 다시 면접을 보고 합격하여 이번에는 영업마케팅 부서에서 영업 매니저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대기업과 관공서의 법인차량 세차 관련 업무를 익히며,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영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내 스스로가 크게 성장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퇴직 후 겪었던 경제적 어려움과 개인회생절차를 밟아야 했던 힘든 경험에도 불구하고, 저는 끊임없이 새로운 기회를 찾아 나섰습니다. 특히 ‘서울런4050’은 저에게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막막함과 두려움을 느끼던 시기에 이 프로그램을 통해 얻은 멘토링과 실질적인 지원 덕분에 저는 재취업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중간에 퇴사 권유를 받은 후에도 이 프로그램은 저에게 다시 한번 힘을 주었기에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도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끊임없이 도전하며 새로운 기회를 모색한 결과, 의미 있는 직장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중장년 여러분, 서울런4050의 든든한 지원과 함께 여러분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인생 2막을 자신 있게 열어가지길 바랍니다.



움츠려있던 내가 긍정적이고 도전적으로 변하기까지 | 4050직무훈련

오창환

지난 6년 동안 프리랜서로서 좋아하는 일을 해 왔지만 돈을 좀 더 벌어야겠다는 생각에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여기저기 이력서를 보내고 직접 전화를 걸어보기도 했는데, 채용 담당자는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를 묻고, 대답하면 “검토하고 연락드리겠습니다”라는 원론적인 이야기를 한다. 절망적인 기분에 채용사이트 자체가 보기 싫어지기도 했다.

그날도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우연히 50플러스포털을 발견했다. 중장년을 위한 정보와 직무훈련, 채용설명회가 화면 가득 펼쳐지자 눈이 휘둥그레졌다. 가장 기뻐던 것은 채용설명회와 직무훈련 후에 ‘현장면접’이 진행된다는 점이 었다. 민간 채용 사이트에서는 면접 자체가 하늘의 별따기 같은 느낌이었는데 말이다.

「승강기 유지보수 보조 인력 양성」 직무훈련을 통해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분야의 정보를 습득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미래 계획도 세워보게 되었다. 사람은 알면 자신감을 얻게 되고, 모르면 두려울 수 밖에 없다. 배움을 통해 내 미래에 대해 더이상 두려움이 아닌 긍정과 개혁, 도전의 기회로 생각하게 되었다.

만남과 소통을 통한 정보교류

내 또래 동료들과 함께 하다보니 서로 다양한 정보 공유가 가능했다. 무엇보다도 나와 비슷한 입장의 사람들과 함께 있다는 자체가 나를 외롭지 않게 했다. 다들 나처럼 금전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를 극복하고자 이곳에 왔다는 것에 심리적인 안정감을 느꼈다. 직무훈련을 받는 동안 끈끈한 소속감을 느낄 수 있었고, 향후 채용을 향해 가는 내 자신에게도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자기 개발과 동기 부여

‘아직 해야 할 일이 있고, 공부해야 할 것도 있구나’라는 생각, 즉 자기 개발에 대해 깨닫게 되었다. ‘평생 학습’이라는 단어의 중요성을 절실히 느꼈다. 목표가 생기면 행동으로 이어지고 그 행동은 결과를 낳는 것을 새삼 느끼기도 했다.

매일 스트레스 받던 모습은 사라지고, 앞으로 나아가고자 노력하는 내 모습을 발견했다. 새로운 분야에 적응하려고 노력하는 스스로를 칭찬해 주게 되었다.

가족 및 사회적 관계의 개선

직무훈련을 받느라 집을 나서자 가족들이 너무나도 좋아했다. 오늘 배운 내용을 가족에게 들려주느라 평소보다 대화가 늘어나기도 했다. 채용이 되든 안되든 새로운 도전과 배움이 가족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사회적 관계에도 전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훈련 종료 후, 취업에도 성공했다. 물론 지금까지 경험하지 않은 새로운 분야다. 채용 담당자에 따르면 내가 ‘해보고자 하는 긍정적이고도 적극적인 모습’을 면접에서 보여줘서 채용했다고 한다. 훈련 과정에서 일어난 태도의 변화, 관계의 개선, 자신감 상승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얻어진 결과일 것이다.

직무훈련을 통한 나의 변화는 또다른 나의 모습, 그리고 잠들어 있던, 죽어 있던 감성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되었다.



2024년 서울특별시 우수사례 공모전
내 인생의 체인지업!

2024년 서울특별시 우수
우수

우수상

우수상

우수상

우수상

우수상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인생 후반을 준비하는 서울시 중장년 세대(만40~64세)를 위한
경력설계, 직업훈련, 일자리를 지원하는 서울시 출연기관입니다.

여전히 일하고 활동하고 싶은 중장년 세대의 든든한 내일을 지원합니다.

여러분의 체인지업!

서울시50플러스재단과 함께하세요.

서울시 전환기 중장년 집중지원 프로젝트 서울런4050 소개

더 나은 일을 하고 싶은 40대와 더 오래 일하고 싶은 5060세대를 위해 직업 역량을
강화하여 재취업과 창업으로 직업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집중대상 | 40대 | 40대+50대 | | 50대 |
|------|--|--|--|--|
| 분야 | 직업 역량 교육 | 일자리 지원 | 디지털 전환 교육 | 생애설계·노후준비 |
| 주요사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장년 직업역량 강화 지원체계• 대학연계 진로 직업 교육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취업(이직,전직) 지원• 창업·창직 지원• 보람일자리, 안심/뉴딜일자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래사회 직업능력 교육• 소상공인 디지털전환(DX)프로젝트•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애설계상담 및 인생설계학교• 안전한 노후생활 지원• 풍요로운 인생2막 프로그램 |

주요사업 소개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서울시 중장년 지원정책의 싱크탱크이자 컨트롤타워로 전환기 중장년 집중지원 프로젝트 ‘서울런4050’의 핵심 수행기관입니다.

중장년 정책사업의 총괄기획과, 사업의 주요 실행단위인 50플러스캠퍼스를 운영하고, 지역밀착형 50플러스센터와 협력합니다.

일자리 지원

중장년의 경험, 역량, 욕구 기반 일자리 발굴, 취업 및 창업·창직 지원

- ▶ 재취업 지원(취업컨설팅, 채용설명회, 일자리박람회 등)
- ▶ 경력인재 지원사업
- ▶ 창업·창직 지원
- ▶ 공헌형 일자리 지원(서울시 가치동행일자리)
- ▶ 경력설계 지원

직업능력 개발

변화에 적응하고 대응하는 맞춤형 직업전환, 역량강화 훈련, 퇴직설계 제공

- ▶ 4050직업훈련
- ▶ 40대직업캠프
- ▶ 디지털 전환교육

서울시50플러스재단 서울런4050 우수사례 스토리북
내 인생의 체인지업! 시즌2

발행일 2024년 12월 27일
발행처 서울시50플러스재단
제작부서 홍보팀

사진 옐로그래이
디자인 슴슴집

주소 서울시 마포구 백범로31길 21, 서울복지타운 3층
홈페이지 www.50plus.or.kr

이 책은 서울시50플러스재단 사업 관계자와 참여자 여러분의 도움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이 책에 담긴 내용을 대외적으로 발표하거나 인용할 때에는 ‘서울시50플러스재단 서울런4050 우수사례 스토리북’의 내용임을 밝혀야 합니다.